

2024년 대림시기 말씀살기

- 갈라티아서 · 에페소서 · 필리피서 · 콜로새서 · 테살로니카서 묵상
- 하루 5분, 성경 읽기

갈라티아서 · 에페소서 · 필리피서 · 콜로새서 · 테살로니카서 묵상

갈라티아서는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전통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이들을 향한 경고와, 율법 준수가 아닌 구원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화된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바오로는 갈라티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 부르며, 그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고 명백한 논거를 들며 율법과 성령, 억압과 자유, 공로와 은총 등의 문제에서 성령과 자유와 은총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율법의 시대가 종결되었음을 강조하며 ‘복음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참된 교의를 수호하려는 열정과 신념으로 쓰인 이 편지는 영적 해방과 자유에 관한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페소서는 공동체 안에 퍼져 가는 이단적인 사상을 경고하며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알려 줍니다. 이러한 에페소서의 내용은 콜로새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두 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구원 섭리의 신비가 사도에게 계시되어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되었음을 알려 줍니다. 그 가운데 에페소서는 주로 교회론에 초점을 맞추며 콜로새서는 그리스도론에 주된 관심을 보입니다.

필리피서는 바오로 서간 가운데 가장 따뜻한 어조로 쓰였습니다.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준 온정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권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글을 쓰며 생사를 초월해 있는 사도 바오로는 복음을 받은 사람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에 있다고 깨우쳐주며 자신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콜로새서는 특별히 종교 혼합주의를 경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체적인 생활 규범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성령의 선물인 영적 지혜와 깨달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전합니다. 특별히 장엄한 그리스도 찬가(1,15-20)를 통해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으로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테살로니카 1서는 바오로의 서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바오로는 2차 선교 여행 중 코린토에 있을 때 이 서간을 통해 테살로니카 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테살로니카 1서와 2서는 모두 종말을 다루고 있지만 입장이 매우 다릅니다. 1서는 처음의 신앙 생활을 기억하며 열성을 지니고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도록 권유하고, 2서는 종말이 지연됨에 따라 겪게 되는 공동체 내부의 이탈과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 자료 출처: '매일의 삶 말씀살기' 60-62쪽, 춘천교구 성경사목부

하루 5분, 성경 읽기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꾸준히 말씀과 함께 머물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대림시기 말씀살기'와 함께 복된 대림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5)

2024년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